



을 썼는데 周緣에는 C字 倒置形의 火焰이 있다. 冠 밑에는 環帶가 있고 中央前面에 花紋이 있다. 環帶 밑에는 寶髮이 보이고 兩側에서 늘어진 寶髮이 어깨까지 내려왔다. 顔面은 比較的 긴편인데 눈은 半開하고 兩眉는 半月形이다.

입가에는 微笑를 띠었고 鼻梁은 얇은 편이다. 목은 긴편이지만 三道가 없다. 목에는 數條의 목걸이를 걸었고 腹前에는 큰 花瓣을 두고 이것을 中心으로 上下로 各二條의 連珠裝飾이 굽게 表示되었다. 이 裝飾 뒤로 二條의 帶紐가 길게 늘어져 끝에는 술로 表示되었다. 天衣는 두어 개에 걸렸으며 連珠裝飾과 平行되게 前面으로 늘여졌다가 다시 두 팔에 걸쳐 兩側으로 길게 내려와서 蓮臺에 까지 이르고 있다. 胸前의 목걸이 밑으로 天衣의 一端이 보이고 腹部以下에는 裙衣가 있는데 褶襞이 二處에 나타나 있다. 兩手는 이미 一切斷亡失되었으며 右手는 施無畏印으로 後補되었다. 따라서 元來의 手印은 알 수 없고 兩足은 前面을 向하였다. 背面에서 數條의 衣文線이 보일 뿐 細密한 表現은 없고 다만 下部 衣端과 裙帶위를 덮은 部分에서 주름을 나타냈을 뿐이다. 後頭部에는 長方形 突起가 있어 光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蓮臺에는 潤瓣 重瓣의 蓮花가 上下로 表現되었는데 瓣端은 若干 들러 있고 下部 蓮瓣은 中央에 縱線이 陽刻되었다. 지금 全面에 胡粉을 塗裝했던 자리가 남아 있으며 裙帶以下部分에는 赤色 塗料가 全面에 남아 있고 胡粉은 그 위에 칠해졌던 듯하다. 蓮臺 밑 方臺 前面에는 다음과 같은 造像銘이 十一行, 一行二字 乃至三字씩 陰刻되었는데 字體는 楷字이다.

大象「二年」八月五日西城「郡守」者慕「悟敬」造石「像一區」永久
供養

顔面에는 北魏樣式의 餘韻을 남기고 있으나 強勁한 風이 없어졌고 身部에 모델링도 腦部가 앞으로 내밀려 新樣式의 埴頭를 보이고 있다. 特히 莊嚴具에 있어 齊周 乃至는 隋代 樣式을 보이고 天衣의 垂下로 隋代 樣式에 가까워졌다. 全體의 彫刻手法도 優雅한 風을 엿볼 수 있다. 造像銘에 보이는 「大象」은 北周末 靜帝의 年號로서 그 二年은 靜帝二年으로 (新羅眞平王二年, 西紀五八〇) 翌年에는 隋에게 亡하고 있으며 이 年號는 不過一年밖에 使用하지 않았다. 本像의 樣式 手法도 銘記의 年號와 合致된다고 보여진다. 다만 記銘에의 「西城郡守者慕悟」이 누구인지 究明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의 課題로 남아 있다.

끝으로 本像이 造像樣式이나 造像銘으로 보아 中國에서 造成되어 傳來된 것이라는 點은 곧 짐작되는데 그 入手經緯가 全然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如何한 經路를 밝아 現位置에 까지 오게 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小像이나 만키 運搬하는데 큰 힘이 들지 않았을 것이지만 傳來된 時期에 對하여도 速斷을 내리기 어렵다.

筆者는 아직 「大象」銘의 佛像을 보지 못하였다. 本像은 齊周代 末期에 있어 隋樣式에의 移行을 보여주는 좋은 資料가 될 뿐 아니라 「大象」銘佛像의 新例로서 重要視된다.

- 全 高 六七・三 cm 肩 幅 一五 cm
頭 高 一六・二 cm 身 高 三九・三 cm
蓮臺高 五・七 cm 方臺高 五・八 cm
方臺幅 二一×一八 cm

白磁燈器具 數例

申 榮 勳

韓國電力株式會社所藏 古燈器具는 現在 約千餘點 남아 있으며 原來는

日人「加藤灌覺」 「岸謙」에 依하여 千五百餘點이 蒐集되었던 것 같다. 十數年間을 放置狀態로 保管하였고 戰亂中 一部 沒知覺한 무리의 弄絡으로 多數가 散逸되어 버려 지금은 上級品은 모두 잃었고 完好品은 小數만 遺存되고 있는 實情이다.

同社所藏品은 雜誌『朝鮮』과 『京電』에 岸謙과 加藤灌覺에 의하여 이 미 소개 되었음은 周知의 事實이지만 그들은 資料로서 充實히 紹介한 것 이 아니고 자기들의 기호에 의하여 나열함에 그쳤기로서는 整理中에 過眼한 몇가지 白磁燈器를 簡略히 紹介하여 두려 한다.

(1) 卍字透刻文白磁 등경걸이

總高三〇・二 cm 承盤直徑一九・三 cm

竿柱高二・五 cm 卍字文直徑二 cm

帶青色 分院系統의 白磁 등경걸이로 아래에는 높직한 굽이 달린 넓적하고 전이 벌어지는 承盤을 두고 그 內底 中央에 連環珠形의 竿柱를 세웠는데 中間以下는 下臺와 同造되고 그 以上의 등잔받침통과 같이 만들어져서 二區가 합쳐서 한 등경걸이를 이루는 형식을 취하였다. 竿柱의 接續部에는 上下로 木心이 連續토록 하고 아래 위 각각에 四處小形圓孔을 뚫어 나무못을 박아 固定토록 하였다.

등잔받침통은 圓筒形의 薄肉製品인데 竿柱와 연속하는 부분을 둥글게 하고 윗쪽으로는 넓직한 구멍을 내어 마치 筆筒의 縮少形인듯이 보이는 데 圓壁四處에는 卍字文을 透刻하였다. 이 원통형기 안에 구리로 얇게 만든 등잔이 놓이는데 등잔의 器體는 亦是 圓筒形이고 그 위에 심지뿔이 가 달린 등근 뚜껑을 덮도록 되었다.

釉色은 平凡하나 「卍」는 없고 全面에 酸化鐵의 잡티가 散在하고 氣泡가 許多하다. 지금은 등잔받침통의 周緣部分이 破損되었다.

收入臺帳에는 大院君時代의 作品으로 明記하고 서울서 入收하였다 고 하였는데 家庭用이었기보다는 寺院의 用度品이 아니었던가 推定된다.

(2) 白磁竹節形竿柱 등경걸이

總高三六 cm 承盤直徑二〇・四 cm

竿柱高三三・五 cm 燈蓋高 九・六 cm

第三卷 第二・三號 通卷十九・二十號

帶青色, 形態는 (1)과 흡사하나 竿柱가 竹節形이고 등잔이 직접 竿柱 끝에 연결되어 있다. 釉

調는 (1)만 못하고 물 먹여 먼지떨기가 不精하여 施釉가 고르지 못하고 가마에 燒 때 불닿는 곳이 좋지 못한 데에 놓여 燒成이 시원치 못하고 酸化된 부분도 있으나 만든 아이디어가 재미있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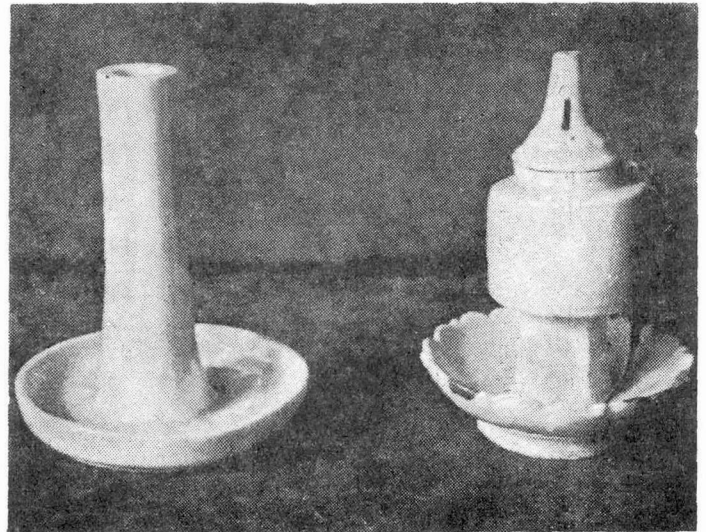
간주를 길게 內空케 만들어 木心을 길직이 박아 用度에 따라 높이고 줄이기를 自在로 하도록 하였고 등잔 심지뿔이에는 細長한 梯形구멍을 파서 심지를 올리고 내리는 데 편하도록 하였다.

收入臺帳에는 一九三三年을 基準으로 약 五十年前의 作品으로 推定하고 있는데 器質로 보나 釉藥의 性質로 보아 分院이 民窯로 되기 以前의 作品이 아닌가 推定된다.

(3) 白磁花蓋・花盤付小形 등경걸이

總高一三 cm 花盤徑 九・六 cm

淡青色, 方形細長孔이 있는 심지뿔이 이어 花瓣을 展開한 蓋가 덮이고 單耳付圓筒壺形燈蓋에 六角竿柱가 달렸으며 그 아래로 滿開한 꽃송이形 承盤이 높이 얹은 굽을 받고 있다. 耳에는 麻製노끈이 꿰어졌고



그 밑에 鑰製 심지돈이가 달렸다.

釉調는 良好하고 가리질, 유약 먹이기, 막손질, 굽기에 이르기까지 精緻하여 此類로는 社內에서 第一級에 속하는 것이나 아깝게도 花盤二處가 破損되었다가 후에 修理된 점이 유감스럽다.

釉藥에 石灰質을 많이 넣은 점과 胎質에서 不精確하나 珪石質이 檢出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文房具類가 盛行하기 以前의 作品으로 推定함이 타당치 않을까 생각된다.

(4) 靑華 白磁 盞臺形 燭臺

總高 三・七cm 臺 徑一三・六cm

底徑 七・三cm 內孔徑 二・二cm

乳白色 古靑으로 內底에 圓輪을 그리고 圓輪에서 內向하여 野草文과 葡萄文을 그렸다. 굽 아래쪽에도 靑華로 單線을 돌렸다. 器體는 盞臺形인데 周緣은 굽고 주연보다 一段 낮게 平滑한 內底가 있고 그 中央에 조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아래로 등글게 파진 구멍이 있다. (深一・二cm) 굽은 충분히 높아 器形全體의 均衡을 맞추어 주었는데 器體는 整齊하다. 釉調는 良好하나 間或 酸化鐵分이 섞인 잡티가 눈에 뜨인다. 上級完好品이나 十六世紀頃의 作品으로 推定된다.

(5) 白磁 陽刻 梅花文 燭臺

總高 一一・八cm 盤徑 一〇・一cm

조꽃이高 一一・七cm 口徑 二・六cm

帶靑色 조꽃이——上促下寬의 細長圓筒形——表面과 圓形承盤內底全面에 梅花文을 陽刻하였는데 瓣이나 간 줄기와 間間이 달린 봉오리, 사방으로 뻗친 가지의 중간에 滿開한 꽃이 들 혹은 셋씩 양각되는 構圖로 處理하였는데 全面을 무늬로 덮었으면서도 복잡하지 않게 간결히 다룬 솜씨, 경직하게 뻗은 가지에 이제 막 필듯한 봉오리를 쪼갬 부드럽게 한 솜씨 등 작품을 만든 功賞의 능숙하고도 剴單한 수법, 놀라운 작품이다. 축소율까지도 충분히 고려하고 만들었으리라 보여지는 문양의 책임새에 비하여 조꽃이를 承盤中央에 固定시키지 않고 빠뜨림하게 부쳐 놓은 잘

못을 저질른 것은 오히려 백자다음고 공장의 훌륭한 유모어가 보여 재 미있다.

釉調는 好奢하나 가볍게 다룬 施釉의 不注意로 손잡았던 자국엔 剝地部面이 생겼다. 뜻대로는 上級完好品, 대략 十六世紀頃의 作品인 듯하다.

이상에 소개한 이외에 作品自體는 美學的으로 卓越하지 못하나 資料로서는 充分한 것들이 多數 있으나 여기서는 우선 이만 줄이고 다음 기회로 밀우겠다.

丁茶山の 山水圖

孟 仁 在

紙本淡彩 二六×三一・七cm 金 庠 基 藏

元來는 二六×一六cm 程度의 畫冊이던 것을 一面만 떼 것으로 한가운데 접혔던 흔적이 있다. 淡朱, 淡綠 彩色은 아직 鮮妍하다.

右上部에는

輓榭肥梧葉正舒

此株枯木獨蕭疏

范寬筆意徐熙墨

好向殘山剩水據

冽樵

란 七言律詩를 墨書했으며 左下隅에는 「顯周私印」(陰文方印) 一顆가 있다.

丁若鏞(一七六一——一八三六), 字는 美庸, 號 茶山 俊菴 與猶堂 京畿廣州 荅川 出身이며 恭齊尹 斗緒는 그 外曾考였다. 일찍 西學에 關聯되어 十九年間의 康津流配에서 풀려난 것은 純祖十七年(一八一八) 이었고 冽樵는 이때 以後의 雅號인 듯하다. 그림은 아마 五十六歲以後 그가世